

저수온 특보 전면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

- 저수온 피해 어가의 복구 신속히 지원

해양수산부는 3월 11일(수) 12시부터 저수온 특보를 전면 해제하고, 위기경보 단계를 '경계'에서 '관심'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.

올겨울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 대비 0.5~1.5℃ 높았고, 2월 말부터 수온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는 작년보다 8일 가량 짧은 57일간 유지되었다.

올해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긴급 방류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, 해양수산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어업인 피해 복구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.

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이번 저수온 재해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.”라며, “저수온 특보는 해제되었지만,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피해 어가가 빠르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	담당자	사무관	박 한 (051-773-5392)
			사무관	전영호 (051-773-5616)
	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	책임자	과 장	한인성 (051-720-2210)
		담당자	연구관	김형철 (051-720-2750)
			연구사	박태규 (051-720-2751)
연구사	이시우 (051-720-2752)			

